

‘어머니, 모성’ 그 페미니스트적 상상력

서러 지음 《어머니의 신화》, 리치 지음 《더이상 어머니는 없다》

김효선

여성신문사 편집부장

모든 사람에게 어머니는 영원한 안식이며 무한한 수용의 대명사다. 이런 어머니의 존재는 우리의 삶을 감미롭게 해준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이 어머니가 되어보면 넉넉해보이기만 하던 어머니의 미소 뒤에 존재하는 적나라한 감정과 혼란의 세계를 만나게 된다. 훌륭한 어머니는 항상 부드럽고 친절하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재치있게 유도하여 가르치라는 모성에 대한 교훈은 막강한 힘으로 여자의 삶을 지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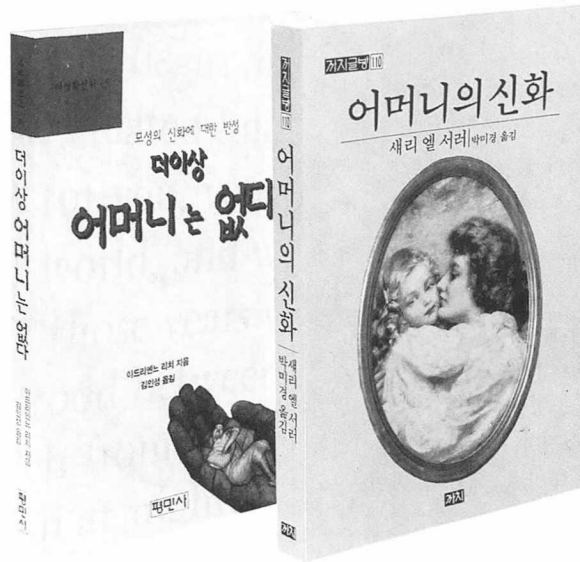
그러나 훌륭한 어머니상에 부합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실제의 어머니들은 잘 알고 있고 그만큼의 자책과 반성으로 대응해왔다. 어머니가 ‘훌륭한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공기나 물처럼 자연스럽다고 생각되는 규범이다. 모성은 ‘본능’의 영역에 속한다는 생각도 지배적이다.

고독한 진통과 ‘모성의 오지’

그러나 어머니의 실제 모습은 이 규범에서 벗어날 때가 많다. 짜증도 내고 큰소리도 지르고 매질도 하며 아이와 떨어져 혼자 있을 시간을 원하기도 한다. 어머니도 어머니이기 전에 가능성과 모순을 지닌 인간인 이상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좀처럼 ‘엄마의 인간선언’은 들리지 않는다.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 없는 여성의 내면체험은 ‘여자들은 언제나 이렇게 살았어’라는 경험 앞에서 포기 또는 체념의 길을 택한다. ‘항상 그랬다’는 것은 본능이고 진리라서 결코 도전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여성이 자기의 모습을 고민하게 될 때 어머니, 모성이라는 문제는 회피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로 다가온다.

어머니가 느끼는 모순의 감정을 숨기거나 회피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사고의 대상을 일단 설정하게 되면 전혀 다른 세계로의 탐험이 시작된다. 모성문화에 대한 여성중심적 탐사보고서가 있다면 여성들의 탐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에 나온 두 책 《더이상 어머니는 없다》와 《어머니의 신화》는 모성문화에 대한 여성중심적 탐사기라는 점에서 눈여겨 봐두어야 할 책이다.

두 책의 저자 페미니스트들에게도 모성이라는 문제설정은 간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드리엔느 리치는 세 아들의 육아 일기로부터 시작하면서 리치 자신의 어머니로서의 삶은 모성문화를 탐험의 준비로 설정했다. 뛰어난 시인이 가진 감수성으로 모성과 자의식간의 마찰을 포착해 지성을 토대로 한 페미니스트적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나간 책이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김인성 옮김)라는 산문집이다.

저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으로 유배되어 이데올로기화된 모성역할을 담당하게 된 모습을 ‘모성의 오지’로 표현한다. 리치는 모든 생명이 여자에게서 태어난다는 생물학적 사실에 기 반해, 여성은 가부장제가 성립하기 전까지 생명력의 원천으로 변화의 동력이었음을 애써 상기시키고 있다. 모성이 강력하고 신성한 존재에서 오지로 유배되기까지의 역사 추적이 리치의 작업이다. 광활한 자연에서 강력한 존재로 숭배받는 여신이 좁은 가정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에게 분노와 애정을 동시에 품는 자이분열적인 현대의 어머니로의 추락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여성중심적인’ 인류문화의 시기를 주목한다. 그 시기에는 “어머니라는 사실로 인하여 존경을 받았던 시기, 여신숭배가 우세했던 시기, 강력한 여성인물을 숭배했던 신화를 가진 시기”이며, 무엇보다 여성적인 것이 가장 근원적인 힘이었던 시기였다. 이런 모성의 우월성은 ‘아버지 왕국’의 ‘어머니 길들이기’를 거쳐 생명 탄생이 ‘인간의 손’에서 ‘철의 손’으로 넘겨지는

최근 나온 이 두 저서는 모성문화에 대한 여성중심적 탐사기라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책이다. 두 저자의 책이 지니는 서구 중심의 역사라는 한계는, 우리나라의 관습을 재료로 삼은 여성주의적 역사서를 읽기 바라는 아쉬움으로 대치된다.

과정이며, 그 결과는 산부인과 병실에서의 ‘고독한 진통’과 ‘모성의 오지’이다.

모성의 사회학적 분석

세리 엘 서러의 《어머니의 신화》(박미경 옮김)는 아드리엔느 리치의 《더이상 어머니는 없다》의 연장선상에서 있다. 리치의 책이 가부장제 문화에서 ‘근원적인 인식의 어려움’에 압도된 모성의 의미를 끌어내 ‘우리 지성의 육체적 토대’를 밝혀낸 데에 의의가 있다면, 서러는 리치가 추적한 토대에 확대경을 들이대 모성이라는 광맥의 지층을 살핀다. 리치가 시적이라면 서러는 사회학적이다.

서러의 《어머니의 신화》 역시 리치가 애정을 가지고 상기시키고자 했던 선사시대 이전의 여성중심적 세계의 여신의 모습을

강하게 부각시킨다. 수메르, 이집트, 헤브루, 그리스로부터 시작해 르네상스와 빅토리아조를 거쳐 20세기 말까지에 이르는 인류의 전역사를 어머니되기라는 하나의 축으로 관통하고 있다. 서러가 본 인류의 역사 역시 리치와 마찬가지로 성스러운 여신이 자이분열적인 어머니로 추락하는 과정이다.

이런 여신의 추락사는 가부장제의 확립과 함께 진행됐는데, 가부장제의 확립은 결코 평화로운 권력이양이 아니었다. 그 과정은 매우 정치적이며 극렬한 반항과 폭력을 수반했으리라는 해석이다.

또 서양문화사에서 아동 학대와 기아의 관습은 상당히 오랜 기간, 2백년 전까지 지속됐다는 분석은 지금과 같이 자기 아이 기르기에 헌신적인 어머니의 모습이 결코 본능이 아님을 드러낸다. 우리가 본능이라고 알고 있는 모성은 지극히 역사적인 이데올로기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리치와 서러는 인류의 역사를 여신의 추락사, 모성의 황폐화로 보는데 그것은 여성혐오의 역사이기도 하다. 여성의 생명력에 대한 경배와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여성혐오는 서양문명사를 통해 종교, 철학, 과학, 예술로 정교하게 제도화된다. 바로 인류문명사 자체가 여성혐오의 역사이므로 역사에서 여성이 보이지 않게 되고 여성의 진정한 모습은 “근원적인 인식의 어려움”이 돼버렸으며 Her-story 없는 He-story가 역사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 두 책은 모두 방대한 사료를 입체적인 사고와 풍부한 감성으로 재해석해내는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다. 페미니스트적인 여성이 어떤 것인지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책이라 할 만하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두 저자가 공통적으로 고통스러운 바 있는 서구중심의 역사라는 한계이다. 이 책의 한계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사료와 관습을 재료로 삼은 여성주의적 역사서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일까를 깨닫는 데 비롯되는 아쉬움일 것이다. ❖

더이상 어머니는 없다/평민사/A5신/384면/8500원
어머니의 신화/까치/A5신/290면/7000원